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2001년도 표어 ◎

임하소서 성령이여(행1:8)

◎ 행동지침 ◎

- 1. 부흥과 성장이 있는 교회가 되도록 한다.
- 2. 민족과 국가를 위해 기도한다.
- 3. 일치와 증거가 있는 삶을 산다.
- 4. 내가 먼저 변하고 세상을 변화시킨다.

† 발행인 : 이 중 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2001이웃 돕기 바자 개최

홀로 사는 노인, 소년·소녀 가장, 병약한 자 소외된 이웃을 돕고자 9월 19일(수) ~ 21일(금)

하늘 아버지께 예배드릴 처소를 지음으로서 십자가의 세로기둥을 세웠고 이제 이 땅의 형제 사랑을 실천하여 십자가의 가로 기둥을 연결하여 이곳에 십자가의 도를 세우는 이번 행사는 홀로 사는 노인의 궁핍을 돌아보고, 소년·소녀 가장들의 안쓰러운 손길을 잡아주며 병마로 오랜 시간 고통받으며 사회로부터 소외된 이웃에게 주님의 도와 사랑을 전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효율적인 전도의 기회로 삼고자 개최된다.

당회에서는 이번 열번째 갖는 바자의 세부계획-교구별 홍보계획, 판매장소, 물품 등-을 확정지었다.

바자는 오는 9월19일(수)~21(금)일까지 3일간이며, 19일(수) 12시30분에 개장예배, 21일(금) 17시 30분에 폐장예배를 드리게 된다. 본 교회당 전면공지와 1층 로비, 지하1층, 8층 만나홀을 장소로 사용케 되었다. 각 교구별 홍보지역 및 판매물품 및 장소 등은 3면 기사를 참조하기 바란다.

필그림 예술단 조직 문화선교사역의 중심이 된다

교회는 날로 타락하는 세상의 속된 문화를 지양하고 피로 값주고 사신이 땅에 기독교 문화를 정착시키는 문화선교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그림 예술단을 재조직하였다.

로 전문 사역팀을 구성하여 기독교의 건전한 문화를 통해 성경적인 가치관을 전파하여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올바른 신행일치의 삶을 구현하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로 주님께 헌신하여 주의 나라를 위해 헌신케 된다. 단장에는 신용식 집사 총무로는 윤종덕 집사가 임명되었다.

필그림 예술단은 예술인을 중심으로

다락방예배 재개되다.

무더운 여름, 풀어졌던 자신을 다시 추스리고 신앙을 복돋우는 쾌청한 9월이 되어 8월 한 달간 휴강을 하였던 다락방 예배가 다시 재개되었다.

각 교구의 간사와 다락방장들은 교구와 다락방 식구들의 신앙상태 등의 사항을 점검하여 교구담당 교역자에게 연락하여 심방 등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다.

성도들은 자신이 속한 다락방을 확인하여 다락방 예배에 꼭 참석하여 신앙성숙의 기회로 삼아야겠다.

서울성경대학, 주부대학, 살롬 경로대학 은혜 중에 개강되다.

교회가 성도와 지역주민을 위한 열린 프로그램으로 준비한 서울성경대학과 주부대학, 살롬 경로대학이 은혜 중에 개강하였다.

평소 성경을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싶으나 기회가 닿지 않았던 성도와 평생교육을 원하는 성도들은 성경대학과 주부대학, 살롬 경로대학을 통한 좋은 교육의 기회를 갖기 바란다.

수강료는 각 대학당 10,000 원으로 동일하다.(단 성경대학은 과목당 10,000 원)

지난 주 이모저모



- ① 20악기 목회자 세미나를 위해 멀리서 가까에서 오신 목회자들 - 웨스트민스터 홀을 가득 채우고
- ② 성찬식 위해 500kg을 넘는 손길을
- ③ 교회안에서의 평생교육 - 살롬 경로대학의 시작



캠퍼스선교에 앞장서다

- 명지대 용인 캠퍼스 기숙사 -

우리 서울교회는 8월 27일 명지대 용인 캠퍼스 남자기숙사 4동 기숙생 176명을 대상으로 전도의 목표를 세우고 이를 이루기 위해 이태훈 전도사를 파송하였다.

이태훈 전도사는 파송된 명지대 남자기숙사 4동에서 학생상담, 성경공부, 기도회를 인도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본 교회와 명지대 대학 당국은 이번 사역을 통한 전도의 열매가 크게 맺기를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다.

핸드벨 콰이어 단원 모집

우리의 쾨트를 울리는 영롱한 소리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있는 핸드벨 콰이어에서 2001년도 하반기 단원 충원계획에 의해 단원을 모집한다. 평소 핸드벨 콰이어에서 봉사하기를 원하였던 성도의 많은 응시가 있기를 기도한다. 응모자격은 대학-청년부의 연령층에 해당하는 성도로 음악의 재질이 있는 성도이면 누구나 응시가 가능하고 접수는 매주 2부 예배 후 705호 핸드벨 연습실에서 하며 소정의 오디션을 거친 후 선발케 된다.

이번주 말씀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지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개역개정판 눅 14:26-27)

"If anyone comes to me and does not hate his father and mother, his wife and children, his brothers and sisters-yes, even his own life-he cannot be my disciple. And anyone who does not carry his cross and follow me cannot be my disciple.(Lk 14:26-27)

이사야서 강해

메시아 사역

(이사야 50:4 - 11)



이중운 목사

여호와와 종 된 메시아가 받은 은사와 사명은 무엇입니까? 은사란 잘 훈련된 학자의 재질을 말합니다. 메시아는 학자의 혀를 가지고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1. 심혼골수를 쫓개시는 말씀으로 인생들을 도우심

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4절에서는 갑자기 메시아가 말씀하십니다. 본문에는 '주 여호와'라는 말이 4번 반복하여 나옵니다(4, 5, 7, 9절). 이 말은 주 여호와 하나님이 메시아 되신 하나님으로 이 두분은 일체이심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어로 '림두딤'이라고 하는 '학자'는 배운 자, 즉 하나님께 많이 배워 깨달은 자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아시고 그대로만 순종하신 메시아입니다(요 3:11, 21, 4:34, 5:19, 30, 6:38). 메시아는 우리에게 때에 알맞은 말, 기쁨을 주는 말, 경고의 말, 협조의 말, 책망의 말, 위로의 말을 하십니다.

메시아는 말씀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말 한 마디로 천 냥 빚을 갚는다는 속담처럼 말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지금도 우주만상이 말씀에 붙잡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히 4:12). 그리스도의 말씀은 하나님의 오묘한 뜻을 깊이 아시고 나타내신 날카로운 진리이기 때문에(사 49:2) 사람의 심혼골수를 쫓개어 새롭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곤핍한 자들'이 그의 말씀을 듣고 살아나게 됩니다(마 11:28).

2. 하나님과 교통

"아침마다 깨우치시되"(4절).

하나님께서서는 그리스도와 계속 동행하시며 교통하시어 그의 뜻을 매일 알게 하십니다. 성부의 계시를 계속적으로 성자의 귀에 들려주십니다.

교통은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고 하는데 교제 이상의 깊은 뜻입니다. 그런데 메시아는 아침마다, 다시 말해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 교통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시고 동행하시어 교통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3. 하나님께 순종하심

"나의 귀를 깨우치사"(4절).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순종하심을 말한다. 성부는 성자와 동행하시며 떠나지 않고 항상 말씀하십니다(요 8:29).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일관되게 순종하시어,

① 율법 아래 순종하셨습니다.

② 세례 요한의 세례도 순종으로 받으셨습니다.

③ 모든 사역이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을 이루려 하셨습니다.

④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순종은 귀가 열리지 못하여 거역한 이스라엘과 대조됩니다(사 48:8).

5절의 '귀를 열으심'은 순종을 의미하며 '귀를 깨우치사'와 같은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자기 뜻대로 하신 것이 하나도 없고 죽음 앞에서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이루옵소서"(마 26:39)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는 순종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히 5:8 - 9). 메시아는 철저히 아버지 하나님을 순종하셨습니다.

4. 고난 당하심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 뱀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6절)는 예수님의 잡히심, 심문 당하심,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당하실 모욕을 예언한 말입니다.

6절에는 '맡기며'라는 말이 2번 나오고 '피하려고 얼굴을 가리지 않았다'는 말이 1번 나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순종이 능동적이고 자원하여 하심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능동적이고 자원하는 순종은 수난의 대속적 의미를 가리킵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뱀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마 26:67, 27:26, 요 19:1).

'나의 수염을 뽑는 자에게'(기록은 없으나 있었을 것으로 추측, 느 13:25 참조), '침뱀음'(마 26:67, 27, 30). 그리스도는 이 같은 모욕과 고난을 능동적으로 자원하여 받으셨습니다. 고난을 받으시는 메시아는 죄가 없으신 분이므로 그의 고난은 우리를 대신 하신 것입니다(6 - 9절)

5. 굳게 서서 승리하심

옳은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되어진 결과 때문에 움츠렸으나 메시아는 은혜로운 결과를 믿어 의심

치 않으셨습니다. 7절은 메시아는 원수로부터 모욕과 박해를 받으시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의 주장을 굽히지 않으셨음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가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이며(요 8:29, 16:32), 또한 온유하시기 때문입니다. 유순함은 담대함의 부모입니다(Gentleness is parent of boldness.). 유순함은 담대함을 낳습니다.

"내 얼굴을 부딪듯같이 굳게 하였으므로"(7절). 선지자는 메시아께서 극심한 모욕 중에서도 굴하지 않으시고 굳건한 자세를 견지하실 것을 예언합니다. 예수님은 수난 앞에서 조금도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의롭다고 하시는데 누가 그분을 정죄 하겠습니까? 당시 대제사장과 유대인 교권 주의자들, 거짓 증인까지 세워 그리스도를 정죄 하려 했으나 결국은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총독 빌라도는 세 번이나 그리스도의 무죄를 선언했고(요 18:38, 19:4, 6), 십자가에 못 박힌 한 강도는 예수님을 향하여 의인이시라고 고백했습니다(눅 23:41).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종이 그들을 먹으리라"(9절). 메시아를 대적하는 자의 종국은 다 남아져 쇠약해지고 쫓에게 먹혀 멸망케 됩니다(시 39:11). 역사적으로 교회를 대적한 사람이나 정권은 모두 망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굳게 서서 승리 하십니다.

6. 성도에게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권면하심

메시아께서 믿는 자들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고 권면하시고 회개하지 않는 악도(惡徒)들을 경고하시는 말씀을 주십니다(10, 11절). 메시아의 권면 속에는 위로와 격려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목소리에 청종하는 성도들은 먼저 부르시며 세상에서는 성도에게 안전할 때가 없음 아시는 주님께서 그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리라고 약속을 주십니다.

잘 믿는 신자에게도 불신앙의 시험이 오는 때가 있습니다. '혹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는 환난에 처한 성도를 가리킵니다. 혹암 중에서는 등불만 보고 갑니다. 이처럼 환난으로 둘러싸인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살아 계신 주님만 신뢰하면 구원을 얻습니다(시 91:1 - 16)

11절은 깊은 밤중에 외로운 나그네가 길가는 것을 가지고 악인의 행위와 결과를 비유합니다. 깊은 밤중 외로운 여행자는 횡박을 피우나 그것은 곧 꺼지고 맙니다. 이처럼 악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신의 계획이나 생각이나 의지로 일을 처리하면 반드시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11절). 메시아는 마지막 심판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새가족부 homecoming day를 마치고



9월1일 오후3시 8층 만나홀에서 열린 제1회 새가족부 homecoming day에는 200여명이 넘는 올해 등록한 성도들과 그 가족들, 이종윤 목사님과 교역자들, 21분의 장로님, 각 부서 회장단, 부장, 책임자들을 합쳐 300여명이 넘게 성황을 이루었다.

올해 등록한 성도들이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여 반찬회를 갖고 회원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당회원들과 인사를 직접 나누고 자리매김(성경공부반, 선교회, 전도회, 교구-다락방)을 실시하며 봉사부서를 안내, 연결하기 위해 개최된 본 행사는 글로리아 중창단이 찬양을 인도하고 끝이 감사예배를 드렸다.

박경자 집사의 특송에 이어 교회학교 교장 이종윤 목사님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처럼'이란 제목의 말씀을 통해 충성과 순종의 일꾼들이 되어줄 것을 당부하였다. 새가족들은 열심히 말씀을 공부하자는 뜻으로 대형 화이트 보드를 교회에 기증하

였다. '한가족이 됐어요'라는 간증시간에는 Y 성도의 간증이 압권, 좌중에게 폭소를 안겨주었다. 그래서 인지 지난주에는 찬양대 앞쪽자리가 인기가 있어 오랜만에 좌우가 균형 잡힌 예배를 드린 것 같다는 레포트도 있었다고.

자리매김의 시간에는 각 피켓맨들이 소속을 알리면 그곳으로 이동하여 함께 소속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성경공부반, 선교회 및 전도회, 다락방별 명단과 연락처를 받아든 책임자들은 상기된 표정으로 한 명이라도 더 끌어안기 위해 진지한 시간을 보냈다.

적지 않은 인원들이 짧은 시간에 질서정연하게 자리매김에 협조한 것은 성숙한 서울교회 교인들의 자부심을 확실히 해주었다.

다음은 봉사부서 안내 및 상담시간, 각 부서는 booth에서 기다리지 않고 새가족들을 직접 멘토맨으로 찾아가 적극적인 스카우트에 나섰다. 가장 뛰

어난 활약은 별도의 피켓을 제작하여 인쇄전술을 구사한 베들레헴 찬양대였고 아예 표시 안내판을 들고 식당봉사자를 찾아다니던 윤찬오 장로님이 장려상 감이었고, 이날 특송을 부른 박경자 집사는 은밀히 접촉하여 스카우트에 성공한 H찬양대가 월척 상을 탔다.

새가족부 교사들과 무지개 회원들이 중심이 되어 준비한 저녁식사는 호텔 뷔페를 능가 할 정도라는 평과 함께 교회메뉴를 업그레이드 시켰다는 평을 함께 받았다. 연이은 경품 추첨에서는 장로님들과 새가족부 교사들, 그리고 일부 교구에서 협찬하여 물 반 고기 반의 경품 대박잔치가 됐다. 그래도 당첨이 되지 못한 분들을 위해 기념 타올과 티슈를 한 박스씩 선물했다.

물질과 기도로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기뻐하셨던 하나님께 앞으로 계속될 homecoming day를 통해 계속 큰 영광을 돌려드릴 것을 다짐해본다.



6년전에 수혈을 받고 수술을 한적이 있었습니다. 반포동에 교회가 있을 때 서울교회에 가려면 강남역을 꼭 지나가는데, 어느 날 현혈차를 보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의 육체는 수많은 사람들의 헌혈된 피로 수혈을 받고, 나의 영혼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수혈이 되어 살게되고, 소망을 갖게되었구나. 영혼이 죽어가는 자에게 예수님 피로 수혈하여 천국으로 가는 구원열차를 타게 해야지' 다짐하고 가끔씩 버스 안에서 길거리에서 주춤거리며 부끄럽게 생각하며 예수 믿으세요.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많은 영혼을 위하여 기도했지만 나의 삶이 전도의 삶이 아니라 전도해야지 생각만 가득한 삶이었습니다.

70인 전도대에서 교육받은 전도 훈련이 복음 증거에 많은 도움이 되었지만 1기 목요전도 학교를 입



전도학교로 오세요

조선영 (12교구)

학하고 나서 나는 무엇을 위하여 살았는가? 나는 과연 구원의 확신이 있었는가?

나는 성령 충만한 삶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살았구나! 하는 회개와 함께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고백한 베드로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이적과 축복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구나. 더욱 실감하면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해야겠구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겠구나.' 이제는 새벽예배 갈 때 올 때 사람 만나는 것이 즐거워 졌으며 복음전할 때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전도학교 훈련내용이 너무나 알차고 성령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전도하기 때문이죠.

성도님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한 분들은 그 열정을 가슴에만 머리에만 가지고 있지 마시고 전도학교를 통하여 죽어가고 있는 영혼에게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수혈하는데 동참하십시오.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지는 비결을 원하시는 분들은 꼭 참석해주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꼭꼭 많이 많이 동참하십시오

전도학교는 매주 목요일 10:00-12:00 609호에서 열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웃들기배자 홍보지역 배치도

아파트	은마	미도	청실	개포우성1차	현대사원,국제	현대	우성1	우성2	주공	삼성	쌍용	선경
동수	28	21	18	14	1/3	1	6	5		14	5	12
세대	4,424	2,436	1,378	1,140	120/200	630	476	354	552	960	994	1,678
담당교구	1	2	3	4	5	6	7	8	9	10	11	12
점포장	이영수	전기섭	정병무	임훈규	민순구	노송성	이영기	최학인	윤봉준	최종시	왕경래	이변생
팀장	정동호	최홍렬	윤성남	최치순	탁경준	장양일	이태원	김광욱	이동만	김성준	이강인	김관홍
	김인숙	이지혁	최일춘	박미혜	박영옥	김정란	진경옥	김정훈	최영란	한명순	김예영	위성남

행동요령 : 교구장의 책임하에 홍보지역을 집중적으로 홍보하여 전도로 승화시킨다.

새로 왔어요

장로교회는 처음입니다

서창보, 김춘권 권사(4교구)

*부부 권사님께서 오셔서 반갑습니다. 장로교회는 처음이시죠?

사: 섬기던 교회가 경기도로 이사를 가서 서울의 가까운 교회를 찾던 중 아는 분이 이종윤 목사님 설교 테이프를 주셔서 듣다가 말씀이 너무 좋아서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 토요일 밤에 서울교회를 찾아왔죠. 예배당도 마음에 들어 다음날 주일에 등록하게 되었어요. 오랜 감리교 생활에 젖어 있다가 장로교회에 와보니 예배분위기도 경건해서 새로운 도전을 받았습시다. 새가족 프로그램이 조직적이고 훈련과정이 훌륭했으며 신앙수준도 높은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교사의 새가족에 대한 관심이 대단하셔요.

*예수를 믿게 된 동기가 있으신지요?

김: 친정어머니가 7남매를 낳으셨는데 제 밑으로 네 명이 모두 죽고 3명이 남았는데 모든 일을 무당에게 맡기시곤 하셨어요. 그런데 제 아이가 세 살 때 갑자기 아파 드러누웠는데도 병원에 보낼 생각은 없으시고 푸닥거리만 하시는 걸 보시고 애들은 그렇게 키워서 안되겠다 싶어 예수 믿기로 작정했죠. 다행히 친정어머니께서 반대를 않으시더군요.

*신앙생활 중 깊은 감격의 시간을 가지신 적이 있으신지요?

김: 육신의 아버지를 14세때 잃고 홀어머니 안에서 외롭게 자라다가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처음 불렀을 때 감격했습니다. 그후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는 언제나 하나님과 의논하였고,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8년 전 성전 건축중단으로 8명이 철야기도 지원팀에 들어가 기도하면서 체힘도 많이 하고 은혜도 많이 받았습시다. 어려운 가정경제 하에서 50이 넘는 나이에 멀리

새벽기도회에 참석키 위해 면허를 따고 겹도 없이 다니다 보니 운전도 늘었고 경제적으로도 안정이 되니 너무 감사할 뿐입니다.

*전도 생활에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으신지요?

친주교 성당에 다니는 분이 저의 생활을 보고 교회에 나오셨을 때 하나님께 참 감사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곧 전도입니다.)



새가정부
"샘무가"를 소개합니다.

- '샘결의 무성한 가지'를 향한 약속의 말씀 창 49:22,25-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결의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네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네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짓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다"

-샘무가의 모임주체

새가정부는 이규정 목사를 지도 교역자로 김형택 집사를 부장으로 이동만 집사, 손계겸 권사를 부장으로 모시는, 서울교회 결혼 5년 이하의 젊은 부부들이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매주 주일 오후 3시 20분 6층 606호실에서 말씀과 부부성경공부, 삶을 나누는 교제와 중보기도로 각 가정의 "말씀의 샘결에 뿌리박은 공동체"로 세워지고 있습니다.

새가정부 '샘무가'의 VISION은 "주안에서 복을 누리며 창대해 가는 아름다운 가정의 모델"로 서울교회의 젊은 부부들을 섬기고 돌봄으로써 가정마다 복음이 세워지며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 복음이 대를 이어 계속되고 부부간에 말씀으로 화목하며 교회와 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고자 기도하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직 새가정부를 모르시는 분이나 새가정부에 아직 등록을 못하신 여러분, 새가정부와 함께 주님 안에서 복을 누리며 창대해 가는 축복을 함께 하시지 않으시렵니까? 지금 등록해 주십시오. 새가정부는 항상 열려있습니다.



교역자 연락처 변경

- 이성득 02-3446-8408 011-9034-8408
- 정윤돈 02-2242-8407 011-257-8407
- 고경선 02-2247-1527 011-9744-0190
- 이규정 02-517-7161 011-9061-7161
- 지혜영 02-595-9784 017-523-9784
- 이태훈 031-721-3528 016-224-4905
- 이영희 02-594-4862 018-471-4862
- 신미숙 02-352-7622 019-228-6084

단신

이종윤 목사 ATA 에서 포상

이종윤 목사는 지난 8월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아세아 신학연맹(ATA) 총회에서 아세아 신학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특별상을 받았다.

이목사는 ATA 창설멤버로 그리고 아시아 신학교들을 인준하는 의원으로 10년이상 헌신한 것이 인정된 것이다

등정

■ 이종윤 목사는 10일(월) 오전 7시 종로 5가 여전도회 회관에서 한기총이 주최하는 주5일 근무제 찬반토론회에서 발제를 한다. 또한 이번 주부터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30분 부터 9시 30분 까지 장신대 신대원에서 한 학기 동안 강의한다

- 개업/유영준집사, 김은이집사(1교구) 종근당건강 헬스스토아 도곡점 577-7725
- 개업/송정심집사(3교구) 정민부동산 3463-2528
- 오정수장로 성찬용 포도 50박스 기증

이종윤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HLKY 98.1M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 기독교방송(HLKY 1188KHz) 생명의 빛으로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 인터넷방송 (· C3 TV - http://c3tv.co.kr · 호산나넷 - http://hosanna.tv) 주일 설교

- ☞ 금주 식사제공 가정 : 박정수집사 김경옥 권사 - 자녀의 결혼을 감사하며
- ☞ 목회자세미나 간식제공 가정: 김사무엘 장로/정경일 권사, 김재근 집사/안분선 권사, 인대진 집사/김 경희 집사

서울 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목회자세미나,성경대학,경로대학,주부대학을 위하여
2. 이웃돕기 바자를 위하여
3. 병상에 있는 환자들을 위하여
4. 국가의 안정과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위하여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 일 예배	I 부 오전 9시
	II 부 오전 11시 20분
	III부 오후 2시
찬 양 예배	주일 오후 5시
수 요 예배	I 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30분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교회약도 :

